

‘테러리즘’에서 이슬람 세계 해방시키는 책들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 잇따라 출간돼

한국은 이슬람 문화의 불모지다. 이슬람 국가 하면 ‘테러리즘’부터 떠올린다. 사정은 저쪽도 마찬가지다. 일부 이슬람 교과서에 한국은 “혼란한 사치문화와 불평등한 계급구조”의 나라로 적혀 있다. 최근 이런 딱 막힌 소통의 길이 출판의 영역에서 서서히 뚫리고 있다. 국내 아랍 전문가들의 연구성과가 잇따라 나와, 아랍과 무슬림의 역사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지난 9월 12일 미국을 강타한 자살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다. 아울러 부시정부의 살기등등한 응징 결의 또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으로 전세계를 내몰고 있다. 무엇보다 그 와중에 이슬람 사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예전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 객관적으로 소개해

55개국의 나라, 12억 신도(무슬림)를 거느린 이슬람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슬람 하면 알라신과, 칼과 피로 그를 추종하는 맹신도들부터 떠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출간된 국내학자들의 이슬람 연구서들은, 이슬람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과 오해를 가라앉히고 객관적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슬람》(이희수 외, 청아출판사)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국내 소장학자 12명의 공동저서다. 이 책은 이슬람 세계의 역사와 문화유산, 지리적 배경부터, 종교·경제·여성, 아랍-이스라엘 분쟁, 이슬람 국가들을 이끄는 지도자 등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담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력을 통한 강제적인 종교확장이었다. 하지만 초기 무슬

림들은 피정복민들의 대량 개종사태를 막기 위해 <개종 금지백서>까지 발표할 정도였다. 일부다처제 문제도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혀 비도덕적인 제도가 아니다. 전쟁 때문에 남자가 수가 모자라 과부와 고아들이 늘자 이것에 대한 구제책으로 도입됐다.

지은이들은 공통신을 모시는 민족이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미 제국주의의 편파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한 경제 고립이 지속되면서 이 지역에 충성이 난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이슬람법 사상》(이원삼, 아카넷)은 이슬람 문화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슬람법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지은이는 단순한 신앙 체계(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생활양식으로 이슬람법 사상을 이해하라고 주문한다.

이슬람 문화권은 정교일치 사회다. 이슬람법(샤리아)은 다른 문화권의 실정법과 다르게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며, 법이면서 동시에 믿음이고 사상이라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또 이슬람법 사상이 《코란》과 무하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임을 밝혔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무슬림들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슬람법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승된 고대사상을 체



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의식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라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바투타의 성지순례기도 번역돼

우리에게 ‘간수’로 알려진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옥중에서 번역한 《이븐 바투타 여행기(전2권)》(이븐 바투타, 창작과비평사)도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이슬람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었던 14세기에, 한 이슬람 법관이 30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대륙의 10만 km를 여행한 ‘성지순례’의 기록이다.

이 책은 이슬람 문명 전반과 당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생생하게 전달한 문화인류학의 중요난 사료다. 특히 인도에서는 10년 동안 머물며 상류층의 결혼풍습과 델리의 현자, 각종 매매행위와 교환관계 등 다양한 생활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이 밖에 출간된 지는 꽤 지났지만 《이슬람 문명사》(버나드 루이스, 김호동, 이론과실천), 《이슬람 입문》(김정위, 한국외국어대출판부) 등이 시중에 나와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강성민 기자